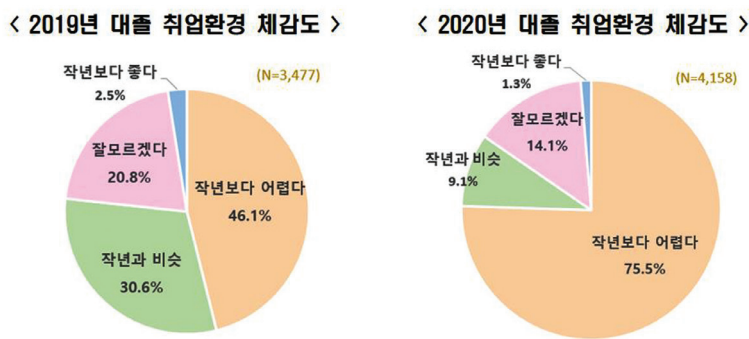


# 대학졸업생, 올해 절반 이상 “직업 없는 백수 될수도”

취업체감도 “작년보다 어렵다” 75.5%  
 중소기업 25%중견 19%... 대기업 8.6%  
 비대면 채용 인식 긍정 50.6% > 부정 21.4%  
 고용유연성 등 기업고용여력 확충 매진필요



대학생들이 졸업을 해도 한 반(과)에 절반 이상이 직업이 없는 백수가 될 것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4일 한국경제연구원(이하 한경연)이 전국 4년제 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 415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‘2020년 대학생 취업인식도 조사’에 따르면, 대학생들의 올해 졸업생 예상 취업률은 44.5%로, 과반인 55.5%가 직업을 구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됐다.

졸업생들의 예상 취업률이 50%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조사대상의 60.5%에 달했다.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 4년제 대학졸업생들의 실제 취업률이 62.6~64.5% 수준이었음을 고려하면, 올해 대학졸업생 예상 취업률 44.5%는 매우 비관적인 전망이다.

국계기업(6.0%) 등의 순이었다.

지난해와 비교해보면, 중소기업의 취업 예상 비중이 7.7%p(2019년 17.3%→2020년 25.0%) 올라 가장 크게 증가했고, 대기업은 6.2%p(2019년 14.8%→2020년 8.6%) 떨어져 가장 크게 감소했다.

◇비대면 채용 인식: 긍정적 50.6% > 부정적 21.4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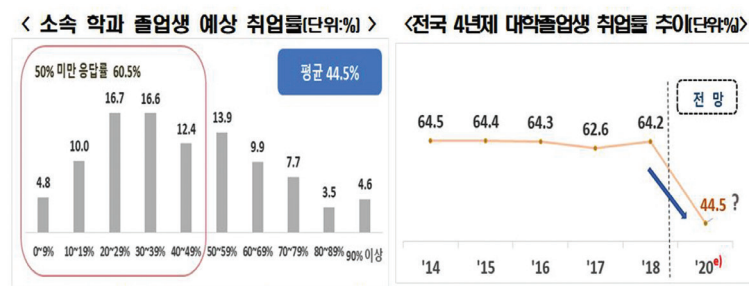
최근 확산되고 있는 비대면 채용에 대해서는 과반인 50.6%가 ‘긍정적’이라고 응답했다. ‘부정적’이라는 응답비중은 21.4%로 조사됐다.

긍정적이라고 응답한 학생들은 그 이유로 ‘코로나19 감염 및 확산 방지’(42.9%)를 가장 많이 꼽았다. 이어 ‘채용진행 단계의 비용과 시간 절약’(28.6%), ‘채용기회의 공정성 강화’(17.1%), ‘평가기준의 객관성·공정성 강화’(11.2%) 순으로 응답했다.

부정적이라고 응답한 이유는 ‘대면방식보다 자신을 제대로 어필하기 어렵음’(41.4%)이 가장 많았다. 이어 ‘부정행위 가능성 증가’(25.8%), ‘시험·면접 단계의 관리감독 미흡’(19.4%), ‘전자기기 고장 또는 네트워크 오류 발생가능성’(12.3%) 순으로 나타났다.

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“최근 고용창출의 주체인 기업들의 활력이 급속히 둔화되면서 청년 취업시장은 그야말로 긴 어둠의 터널에 갇혀있다”며 “청년들의 고용난을 이대로 방치하면 우리 사회의 미래도 없다는 위기감을 갖고 규제완화, 고용유연성 확보 등 기업들의 고용여력 확충에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야 할 것”이라고 지적했다.

뉴스시



※주: 평균산출방식 = Σ (각 범주 중앙값 × 각 범주 응답자수) / 전체 응답자수  
 ※주: 2019년 수치는 미공개(예년 12.31 발표)  
 ※자료: 한국고용개발원, ‘취업준비연보(각연도)’

◇대학생 76%, 작년보다 취업 어려워... “채용감소로 경쟁 심화”

대학생 10명 중 8명(75.5%)은 올해 대졸 신규채용 환경이 ‘작년보다 어렵다’고 응답했다. 지난해 조사에서 ‘작년보다 어렵다’(46.1%)고 응답한 비중보다 29.4%p나 높은 수준이다.

반면 취업 난이도가 ‘작년과 비슷하다’는 비중은 올해 9.1%로 지난해의 30.6%에서 21.5%p 하락했으며, ‘작년보다 좋다’는 응답 비중도 올해 1.3%로 지난해의 2.5%보다 1.2%p 낮았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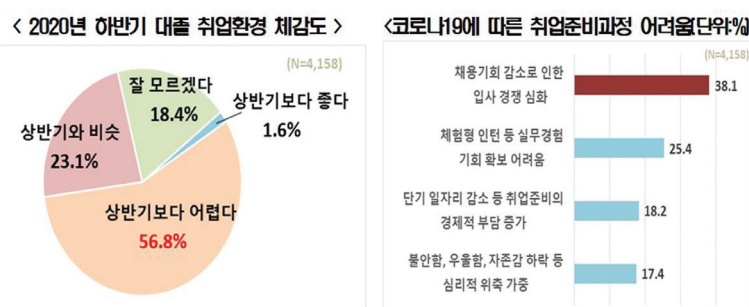
취업난이도를 반기별로 살펴보면, 대학생들의 과반인 56.8%는 올해 하반기 취업환경이 고용난이 심했던 상반기보다 더욱 악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. ‘상반기보다 좋다’고 응답한 비중은 1.6%에 불과했다.

코로나19에 따른 취업준비 과정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‘채용기회 감소로 인한 입사경쟁 심화’(38.1%)를 가장 많이 꼽았다. 이어 ‘체형형 인턴 등 실무경험 기회 확보 어려움’(25.4%), ‘단기 일자리 감소 등 취업준비의 경제적 부담 증가’(18.2%), ‘심리적 위축 가중’(17.4%)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.

◇중소 취업 비중 최대 상승, 대기업 비중 최대 하락

대학생들이 취업을 희망하는 기업은 ▲공기업(21.5%) ▲대기업(16.8%) ▲정부(공무원) (16.8%) ▲중견기업(15.6%) ▲중소기업(11.8%) ▲외국계기업(9.0%) ▲금융기관(3.9%) 순으로 조사됐다.

하지만 실제로 취업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은 ▲중소기업(25.0%) ▲중견기업(19.1%) ▲공기업(16.0%) ▲정부(공무원)(15.9%) ▲대기업(8.6%) ▲외



호남신문 www.i-honam.com 대표전화 (062) 229-6000  
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 
 회장·발행인·편집인 김 평 호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 선 옥  
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정평 13길 19 (061) 727-3123  
 서울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-1 (02) 2238-0003  
 기사제보 (062) 222-2580 광고직통 (062) 228-2580 팩스 (062) 222-5547  
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(일간) / 1946년 4월 창간 / 구독료 월 10,000원 1부 500원 인 쇄 (주)남도프린테크  
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.

##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

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.  
 지금보다 견뎌낼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.  
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.

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.  
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.  
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행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.  
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.

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
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.

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.  
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.



